

2011.12.26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전문농어업인 육성방안 마련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주요 내용

1. 농어업계 학교 교과과정의 연강 중심 개편

가. (농·수고) 전문인력 양성 기능 강화

- 교과과정을 창업·취업에 필요한 현장 기술습득 중심으로 개편
 - 농수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토대로 전문 교과과정 개발 및 실습시설 지원
 -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 비중을 확대
- 유망 농수산업 수요와 연계한 1학교 1특성화 유도
 - 성장 가능한 농수산업 분야에 대한 교과과정 개발 및 교사의 지도 역량 강화
 - ※ 도입가능 유망분야(예) : 약용작물, 곤충산업, 말산업, 조경·잔디 등

나. (농·수산대) 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연강 교육기반 확대

- 농대생 및 농어업 분야 취업·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농·영어 정착과정 운영 확대('11 : 11개교 → '16 : 25개교)
 - ※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창업동아리 운영, 사업계획서 작성 등
- 영농 체험·실습기반 마련 및 학점 인정 학교 확대
 - 지역농업법인, 농진청 산하연구기관, 도 농업기술원 등을 활용한 현장 실습 확대 방안 마련(현장 실습 시 학점 인정)

2. 산업 연장과 학교·학생 교류 강화

가. 선도농업인 겸임교사 활용 및 교원 산업계 연수 강화

- 실습교육이 가능한 선도농업인 등을 겸임교사로 활용
 - 우수 농어업인 선정 및 겸임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농수고 교사 현장교육 및 해외 연수 확대 : ('12) 20명 → ('16) 120
 - ※ 고부가가치·에너지 절약형 농업 등 신기술을 보유한 선도농가·법인 활용

나. 농수산분야 직업 체험 기회 제공 및 사이버 후견인제 운영

- 농수산업 현장방문, 체험실습 및 새로운 농수산분야 직업발굴 프로그램 운영('12 : 10개 대학 → '16 : 53개 고교·대학)
- 선진기술 습득, 현장체험 등을 위해 학교와 선도농어가·우수법인과 의 자매결연 추진
 - 자매결연 농수고 확대 : ('11) 10개교 → ('14) 28
- 농수고 학생과 분야별 전문가를 연결하는 '사이버 후견인제' 운영
 - 재학생의 진로탐색, 취업 등 전문가(선도농업인, 학계, 업계 CEO) 지문을 위한 1:1 멘토링 체계 구축
 - 성과공유, 우수사례 홍보를 위한 성과발표회 개최(매년)

3. 창업·취업 활성화 기반 구축

가. 농수산 산업계와 학교 간 창업·취업 정보교류체계 구축

- (On-line) 농어업법인 채용정보 안내 및 창업·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정보 네트워크(www.agrojob.or.kr) 활성화
- (Off-line) 농어업계 학교의 진로 담당교사 협의회 구성·운영
 - 법인 등에 대한 채용수요 조사, 취업·창업 성공사례 등 공유

나. 원활한 영농·영어 승계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및 제도개선

- 승계 계획 수립·지원, 교육·컨설팅·자문 등 영농·영어 승계 종합 지원 체계 구축
- 농어업 승계 시 상속 재산의 범위와 한도를 일반 기업의 가업 승계 수준(최대 100억원)으로 점진적 확대
 - (현행) 농지·초지·산림지 또는 어선 / 2억원 한도
 - (개선) 농업용 시설 등 추가 / 5억원('12)에서 점차 상향 조정

다. 신규 전문 인력의 창업·취업 활성화 지원

- 신규창업 예정자의 기술성·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시스템 도입
- 곤충·종자산업 등 농수산업 신성장 분야의 청년 창업 지원 확대
 -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및 모태펀드 투자대상 확대
- 농어업법인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: ('12) 200명 → ('16년) 1,000